

# ‘두근두근’ 초등학교는 어떤 곳일까?

### 도교육청, 입학 초기 적응활동 지원자료 개발·보급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초등학교 입학 초기 적응활동 지원 자료를 개발, 3월 신학기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두근두근 1학년’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된 자료는 현직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다년간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경력교사 등이 참여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개발해왔다.

자료는 멀티미디어 자료·교사용 지도서·학생용 활동교재 등 3종으로, 멀티미디어 자료는 웹서비스로 제공되고 교사 및 학생 자료는 각 학교로 배송될 예정이다.

‘두근두근 1학년’은 ▲새롭게 만나는 우리학교 ▲더불어 행복한 우리학교 ▲배움이 즐거운 우리학교 등 3단원 30주제로 구성됐다.

제1장 ‘새롭게 만나는 우리학교’에서는 교실과 학교 시설 둘러보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알아보기 등 학교생활 적응과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주안점을 뒀다.

2장 ‘더불어 행복한 우리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여러 가지 놀이와 다양한 표현 활동 등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구성했다.

3장 ‘배움이 즐거운 우리학교’에서는 바른 자세, 선그리기, 동시부르기, 글자만들기, 숫자에 맞춰 색칠하기 등 기본적인 학습 습관 형성에 중점을 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자료 개발은 초등학교생들의 입학초기 학습 부담을 줄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습관 형성을 돕기



초등학교 입학 초기 적응활동 지원 자료 '두근두근 1학년'.

위함”이라면서 “각 학교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9일 1학년 담임(예정)교사를 대상으로 자료 활용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전북교육청, 전북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8일 10시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최초 응시자 3,625명 중 제1차 시험에서 548명을 선발해, 최종 제2차 시험에서 359명을 합격자로 결정했으며, 발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알림마당 →

고시/공고란에서, 개별별 성적은 합격자 발표 후 8일 동안 중등교원온라인 채용시스템(http://edurecruit.jb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서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실시 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군산대 박인수 사무관 우수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군산대학교 박인수 사무관(대외협력과장, 비서실장 겸임)이 2018년도 우수공무원에 선발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박인수 사무관(56)은 1988년 공직에 임용된 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대학 홍보 활성화, 인사제도 개선 등 대학 및 고등교육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부서 간 홍보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축해 업무별로 분산되어 있던 홍보활동을 일원화했고, 새로운 IT를 구축해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대학 이미지를 구축했다.

또한 학생 진로교육 및 취업 역량 제고를 통한 학생 취업을 향상에 기여했으며,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실행하였다.

이외에도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비하여 교원업적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직원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도 좋은 성과를 냈다.

박인수 사무관은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1998년 국민교육유공자 표창(교육부장관상), 2009년 교육훈련유공자 표창(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2012년 모범공무원상(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교육청이 지난 8일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서 교육공무원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원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8일 공립유·초·중·고·특수학교의 행정실장 및 교육공무원 업무담당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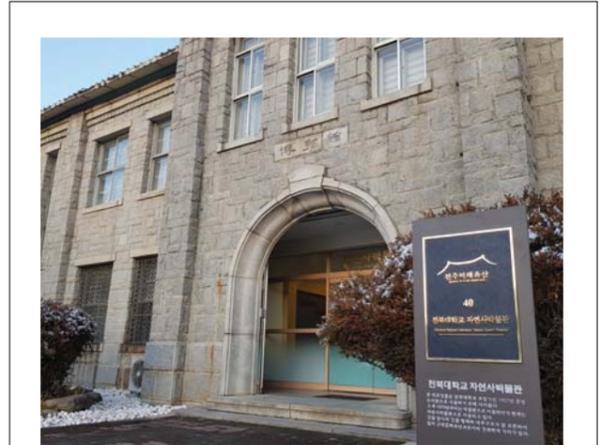
이번 교육은 2018년 12월 28일에 체결된 '2018년도 교육공무원 임금협약'에 따라 변경된 교육공무원 처우개선 내용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

축 등 근로기준법 변경사항 등에 관하여 학교업무담당자의 업무이해도도를 높이고,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2018년 임금협약 결과에 따른 임금지급 기준 안내 ▲2019년 최저임금 적용 안내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변경사항 ▲교육공무원 복무관련 사항 등이 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

정, 2018년 임금협약으로 인한 임금지급기준 변화 등으로 일선 학교 업무담당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공무원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및 업무매뉴얼 제작·보급 등으로 학교 현장의 노사관계 이해도 향상 및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개교 초창기 도서관으로 사용됐던 현 자연사박물관 건물이 전주시가 지정한 미래유산에 선정됐다.

##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전주 미래유산 선정

### 1957년 건립 형태와 내부 잘 보존돼 건축학적 가치 높아

전북대학교 개교 초창기 도서관으로 사용됐던 현 자연사박물관 건물이 전주시가 지정한 미래유산에 선정됐다.

미래유산은 전주 근·현대를 배태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해 전주시가 매년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자연사박물관 건물은 전북대 개교 초창기인 1957년 중앙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졌다. 1979년부터 박물관으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호남권 대학 최초의 자연사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립 당시의 건물 형태와 내부 구조가 잘 보존돼 있어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건축학적 가치가 높

아 이번에 전주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자연사박물관 앞에는 전주시 미래유산임을 알리는 동판이 설치됐고, 전주시 홈페이지 미래유산 코너에 소개돼 많은 이들에게 가치를 알려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이를 활용해 앞으로 투어나 전시, 정담회,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진호 전북대 자연사박물관장은 “전북대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이 건물이 보존하고 계승되어야 할 미래유산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자연 학습의 장이 되고 있는 이곳의 참 가치가 계승되고 더욱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